

## 작별하지 않는 다크투어

죽은 자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한 마중물

저자: 김잔디, (사)제주다크투어 대표

### 서론

2018년은 제주43 70주기였고, 제주다크투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제주43 추모 슬로건은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 이었고, 제주다크투어는 전국의 사람들에게 기행뿐 아니라 방송/유튜브 출현 등 다양한 방식으로 43의 역사, 역사현장, 현재진행의 의제들을 알렸다. 특히, UN 인권이사회 참여, UN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면담, 미국책임 추구를 위한 10만 항의서한 서명운동 및 전달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 제주43을 알리는 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고, 다른 차원에서는 분명 기존 43 운동 접근방식과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었다.

단체 결성 초기 굉장히 높은 주목도는 안타깝게도 지속되지 못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침체기를 맞이한다. 이 과정에서 단체 창립 활동가들이 빠져나가고, 상근 인력이 최소한으로 축소되면서 여행을 중심으로 했던 주력사업이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기록 중심의 사업으로 이어나가게 된다. 이 당시 주목 받았던 사업들이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국영문 안내판 조사보고서>, <제주43 유적지 시민지킴이단> 등이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끝난 이후부터는 기존의 사업들에 더해 마을 단위 43유적지 활용방안 보고서 제작,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맞춰 <작별하지 않는 다크투어> 운영, 43유적지 펜드로잉 수업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가 융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다크투어는 일정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반면, 요구되거나 지속되는 질문과 도전(과제)을 받게 된다. 이에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짧게나마 나누고자 한다.

## 제주다크투어 소개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는 제주도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이자 사단법인으로, 제주도 곳곳에 있는 43 유적지들을 비롯한 역사 현장들을 함께 방문하고 기록하고 지켜나가려 한다. 제주 43을 기억하고 알려나가는 활동을 통해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018년부터 3년간 아름다운재단의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을 받아 살림을 꾸려왔다.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후원회원들의 기부금, 회비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독립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정부를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기행사업>은 제주43 역사현장을 중심으로 여행을 통해 역사를 알리고 기억하는 활동이다. 연평균 1,200 여명이 제주다크투어의 기행에 참여하고 있고, 대부분이 단체 규모의 기행이며, 월 1회 진행하는 일일기행을 통해 소규모 신청자를 모객하여 기행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규모의 기행은 단체의 요구, 특성, 숙소의 위치, 자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노조, 여성, 장애인, 공무원, 아동청소년, 노인, 외국인 등 각 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을 기획하고, 해설사를 배정하며, 항공권 및 여행자보험을 제외하고는 일반 여행사와 동일하게 숙박부터 식당, 교통편까지 모두 대행하고 있다. 일일기행을 통해서서는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보 프로그램을 위주로 기획하며, 단체 임원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존에 자주 진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기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연도별 제주다크투어 기행프로그램 참여 현황

년도	참여그룹(건)	참여자(명)
2018	60	1,331
2019	62	1,505
2020	39	720
2021	19	348
2022	43	1,157
2023	53	1,677
2024	54	1,254
2025(추정)	66	1,561

일일기행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2018년 6월, <애기 동백꽃의 노래와 함께하는 제주시내 다크투어>, 가수 최상돈 진행.
- 2018년 7월, 4·3 유족과 함께 걷는 북촌4·3길 <순이삼촌의 발자국을 찾아서>, 이상언 해설사 진행.
- 2018년 8월, <문학과 함께하는 제주시내 다크투어>, 김동현 문학박사 진행.

- 2018년 10월, <홍춘호 할머니와 함께 걷는 동광 43길>, 홍춘호 할머니 진행.
- 2019년 2월, <시와 함께 43 산전길을 걷다>, 김경훈 시인 진행.
- 2019년 3월, <31절 그날의 합성을 따라 제주시내 원도심 다크투어>, 가수 최상돈 진행.
- 2019년 5월 제주43이 궁금한 당신에게 <43 첫발딛기>, 강호진 이사 진행.
- 2019년 9월, 제2공항과 제주43 <지금 제주, 안녕?>, 김은화강원보 진행.
- 2020년 2월, <1948년 이른 봄, 내 고향 조천이야기>, 김경훈 시인 진행.
- 2020년 3월, <43의 봄, 세월을 걷다>, 가수 최상돈 진행.
- 2022년 6월, <제주의 장두, 이덕구의 흔적을 따라 걷다>, 김경훈 시인 진행.
- 2022년 7월, <한국전쟁의 홀로코스트, 제주 예비검속 다크투어>, 양성주 대표 진행.
- 2022년 9월, <일출의 마을 성산, 걸어서 만나는 43 역사>, 양성주 대표 진행.
- 2023년 3월, <봉개동 43길>, 양성주김잔디 진행

<기록사업>을 통해 제주도 곳곳의 43 유적지들을 방문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이다. 제주 다크투어는 역사현장을 중심으로는 사전 조사를 거쳐 정기적으로 유적지 답사를 진행했다. 답사 후에는 유적지 소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네이버·구글 지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등록 된 장소의 경우 등록 신청을 했다.

어느 정도의 유적지 답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코로나19로 기록사업을 확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역사현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제주도의 역사현장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기존 43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아직 규명되거나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 2018년 10월, 제주43에 대한 미국 책임 10만인 서명 전달식 참여.
- 2018년 11월, <제주43 책임규명을 위한 심포지엄: 제주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토론자 참여.
- 2018년 12월, <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 포럼> ‘기억의 역사로서 다크투어 사례’ 발제자 참여.
- 2019년 3월, 2019 생태관광 발전 방안 세미나 ‘지속가능한 섬을 위한 여행’에서 ‘제주 섬에서의 평화여행’ 발제 참여.
- 2019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앞둔, 역사 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위한 토론회, 토론자 참여.
- 2019년 7월, JIBS 특집토론 ‘대한민국과 4·3’ 토론회 패널 참여.
- 2019년 9월, UN 인권이사회 참석, 구두발언 및 사이드 이벤트 진행(스위스 제네바).
- 2019년 11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전국행동 참여.
- 2020년, 「제주지역 유적지 국·영문 안내판 조사보고서」 발간, 제주도소통협력센터 지원.
- 2020년 6월, 청주 여우골 한국전쟁 유해발굴 참여.
- 2020년 10~12월, 성산을 다크투어 휴먼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집, 성산일출도서관 공동 협업, 한국도서관협회 <길위의 인문학> 지원.
- 2020-2023년, 대전 골령골 한국전쟁 희생자 유해발굴 참여.

- 2021년, 「제주지역 유적지 국·영문 안내판 조사보고서」 개정판 발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 2021년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및 본회의 통과 성명 발표.
- 2021년 3~8월 매주 토요일, CBS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에서 <흔적에서 교훈으로> 프로그램 방송출현, 제주43 역사현장 소개
- 2021년 8월, ‘43 배·보상 차등지급은 또 다른 차별입니다’ 공동성명.
- 2021년, 43유적지 어플리케이션 제작 참여,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지원.
- 2021년, 제주 원도심 43테마지도 제작 참여,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지원.
- 2021년, 도외 43 유적지(수도권, 충청·호남, 대구·경북 등) 조사 진행,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지원.
- 2021-2022년, 도외 과거사단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지원.
- 2022년 3월, ‘제주43 직권 재심 사건 재판 무죄 선고 환영’ 논평.
- 2022년 3~5월, 박진경 추도비 ‘역사의 감옥’ 설치 활동 및 보훈청 규탄 성명.
- 2022년 6월,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공식 방안 맞이 인권시민사회단체 보고서 발표 및 면담
- 2022년 7월, ‘검찰은 특별재심을 43희생자 검증도로 활용말아야’ 논평.
- 2022년 8월, 43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포럼 발족.
- 2022년 8월, 국방부 귀속의 알뜨르비행장부지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 논평.
- 2022년 10월, ‘제주도의 제주43 유적지 ‘다랑쉬굴’ 부지 매입 환영’ 논평.
- 2022년 11월, ‘교육부의 2022년 개정교육과정 43 축소 관련 입장’ 공동성명 및 의견서 제출.
-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43을 부정해 온 김태훈 43 중앙위원 즉각 해임하라!’ 공동성명.
- 2022년, 「봉개동 43유적지 실태조사 및 자원활용 방안 마련 보고서」 발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지원.
- 2023년 2-6월, ‘태영호 국회의원 및 김재원 최고위원 43 망언 사과하고 후보직 사퇴촉구’ 공동 성명 및 기자회견
- 2023년 3월,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당장멈춰라!’ 공동 기자회견, ‘43 폄훼 현수막 철거 촉구 건의문’ 공동 제출
- 2023년 4월, ‘「박진경 추도비 안내판 설치 청원」 도의회 상임위 통과 환영’ 공동논평.
- 2023년 5월, ‘제주43 국제적 해결 촉구 국회결의안 발의 환영’ 공동논평.
- 2023년 7월, ‘박진경 추도비 올바른 안내판 설치 정의로운 역사 해결 위해 제주도가 즉각 나서라’ 공동성명.
- 2023년 8월, ‘제주경찰은 ‘서청’ 비호세력 자처하겠다는 건가?’ 공동성명.
- 2023년 12월, ‘미국 워싱턴 이승만 동상 건립 추진 반대한다’ 공동성명.
- 2023년, 「삼양동 43유적지 실태조사 및 자원활용 방안 마련 보고서」 발간, 제주43기념사업

위원회 지원.

- 2024년 1월, ‘43 가족관계 특례 도입 국회 통과 환영’ 공동논평.
- 2024년 2월, ‘오세훈 서울시장 이승만 기념관 설립 중단해야’ 공동성명.
- 2024년 7월, ‘43 망언 태영호는 민주평통 사무처장 즉각 사퇴하라’ 공동논평.
- 2024년 7월, ‘43 폄훼 주역 김태훈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철회해야’ 공동성명.
- 2024년 8월, ‘KBS는 전파낭비 말고 ‘이승만 찬양 영화’ 방영 중단하라’ 공동성명.
- 2024년 8월, ‘43 폭동 망언 김문수 장관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공동성명.
- 2024년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공동성명.
- 2024년 12월, ‘‘내란 모의 문건’ 43제주폭동 명시 규탄한다.’ 공동성명.
- 2024년 「삼도동 43유적지 실태조사 및 자원활용 방안 마련 보고서」 발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지원.
- 2025년 1월, ‘행안부는 43 희생자 포함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관련 집단 화장과 합사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공동성명.
- 2025년 1월, 트럼프 정부에 서한 발송, 제주43국제네트워크.
- 2025년 4월,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환영합니다’ 논평.
- 2025년 5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선 정책 질의·답변
- 2025년 10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3 폄훼 왜곡 영화 관람 계획 취소해야’ 공동성명.
- 2025년 10월, ‘장동혁 대표의 43 폄훼 왜곡 영화 관람 강행 규탄한다’ 공동성명.
- 2025년 10월, ‘함병선, 박진경 비석에 올바른 안내판 즉각 설치해야’ 공동성명.
- 2025년 12월,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즉각 취소하라!’ 공동성명 및 공동 건의문 발송.
- 2022~현재, 제주43 재심재판 방청 및 기록 사업.

<교육사업>을 통해서도 43이 궁금한 시민을 위해 교육·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온라인을 통한 강좌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시민들과 43관련 기록 및 문학작품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강독모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형 사업도 꾸준히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다.

- 2017-2018년, <국제인권의 시점에서 야스쿠니를 보다> 토론회, 토론자 참여.
- 2018년, ‘지역으로 찾아가는 제주43 강좌’ 진행.
- 2019년, 기획강좌 <인권, 젠더, 평화의 눈으로 본 제주43> 10강, 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 공동주최,
- 2020년 1월,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 오늘의 시선 ‘교과서를 통해 본 제주43의 기억’ 출현.
- 2020년 2월, ‘43 행불인 재심 청구소송은 즉각 개시돼야 합니다’ 논평.
- 2020년 7월,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 오늘의 시선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외국의 과거사 청산 사례’ 소개.

- 2020년 10월-11월, 한국전쟁 발발 70년 <제주43과 한국전쟁> 온라인 기획강좌 진행.
- 2020년, 제민일보 43취재반의 『43은 말한다』, 이츠미 세이지의 『제주도』 강독모임 진행.
- 2020-2021년,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재판 시민방청단 운영.
- 2021년, 김석범 작가의 장편소설 『화산도』 강독모임 진행.
- 2021-2022년, 시민참여형 캠페인으로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운영. 시민이 직접 유적지 답사를 통한 관리 및 보존실태를 점검하고 임시 안내판을 제작하는 퍼포먼스도 진행.
- 2022년, 제민일보 43취재반의 『43은 말한다』 강독모임 진행.
- 2019-2023년, 제주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출강, 도내 중학교에 ‘다크투어 기획자’ 역할로 참여.
- 202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강독모임 진행.
- 2023년, 길위의 43 드로잉 사업 ‘원도심에 숨겨진 43이야기’ 진행, 제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 2024년, 제민일보 43취재반의 『43은 말한다』, 정병준의 『1945년 해방 직후사』 강독모임 진행.
- 2024년, 길위의 43 드로잉 사업 ‘삼양마을 43이야기’ 진행, 제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 2025년,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온라인, 현기영 작가의 『제주도우다』, 페미니즘 정신으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작별하지 않는다』 강독모임 진행.
- 2025년, 길위의 43 드로잉 사업 ‘삼도리 43이야기’ 진행, 문화정거장 봄 협조, 제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제주43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사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국가폭력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연대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과거사 이슈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여러 단위들에 힘을 보태고자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공항, 난개발 등 제주도의 현안과 관련해서도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2018년 10월,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기획한 “학살을 거부한 군인들-여순항쟁” 기행에 참가.
- 2018-2020년 12월, ‘난징대학살 추모식’ 참여.
- 2019년 3월, UN 과거사 특별보고관 초청 심포지엄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공동주최.
- 2019년 5월, UN 자유권위원회에 제주43 등 한국 과거사 관련 보고서 제출(진실과 정의 네트워크 Truth and Justice Network of South Korean NGO)
- 2019년 5월, 인천인권영화제 영화 <기억의 전쟁> GV 참여,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을 기억에 대한 연대 메시지 전달.
- 2019년 6월, 미국 뉴욕 유엔인권심포지엄 <제주43의 진실, 책임, 그리고 화해> 토론자 참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주최 “역사를 평화로” 토크 콘서트 초청 강의,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면담, Tim Shorrock 기자 면담, Legacies of War 대표

면담.

- 2019-2020년 6월, ‘제주43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문제를 은폐하는 전쟁기념관, 적대와 왜곡의 전시를 멈춰라’ 공동 기자회견.
- 2019년 8-11월, 홍콩시위지지 합동 기자회견 및 성명, ‘홍콩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참여.
- 2019년 8월~현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출범 참여 및 활동
- 2019년 10월, <제주, 오키나와 두 섬 이야기> 간담회 개최 및 오키나와 평화기행 프로그램 개발
- 2019년 10월, 여순민중항쟁 71주년 기념식 참여.
- 2019년 11월, ‘동원교육학원은 ‘43 폭동론’ 망언을일삼은 이명희 교수 이사 선임을 즉각 철회해야합니다.’ 공동성명.
- 2019년 11월, 오키나와 작가에게 듣는 동아시아의 역사와 평화 ‘오시로 사다토시 작가와의 대담’ 공동주최.
- 2019년 11월, 20대 국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의 목숨을 건 농성에 당장 응답해야 합니다’ 공동성명.
- 2020년 1월, 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No War on IRAN” 공동 기자회견.
- 2020년 1월, ‘여순 특별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한줄 논평.
- 2020년 1월, 국내외 25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호놀룰루시의회의 ‘이승만의 날’ 제정 결의안 반대 서한 전달.
- 2020년 2-5월, ‘20대 국회는 과거사법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연대성명 및 환영성명 발표.
- 2020년 2월,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 오늘의 시선 ‘일본 오키나와의 다크투어 유적지와 조선인 유해발굴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의 의미’ 주제로 출현.
- 2020년 5월,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 오늘의 시선 ‘5·18민중항쟁 40주년의 의미와 과거사의 국제공동연대’ 주제로 출현.
- 2020년 8월,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 오늘의 시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 75주기를 기억합니다’ 출현.
- 2022년 5월,
- ‘제주다크투어는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합니다’ 지지성명.
- 2020년 7월, ‘강원피스투어’ MOU 체결 및 강원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기행
- 2020년 8월, ‘팬데믹 상황에서도 정의를 위한 전진은 계속 되어야 한다’ 로힝야 학살 3주기 공동성명.
- 2020-2022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 및 한국전쟁 종전 1억 명 서명운동 참여.
- 2021년 3월,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동기자회견.
- 2020-2021년 5월, 5·18 민주화운동 연대추념.
- 2021년 6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환영’ 성명.
- 2021년 8월, ‘한국 정부는 아프간 난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공동성명.
-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라’ 공동성명

- 2022년 6월, ‘미얀마 군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사형집행 승인을 철회하라’ 공동기자회견.
- 2022년 6월, ‘알로하 아이나! 전쟁 연습 말고 평화 연습!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공동성명.
- 2022년 10월, 다큐멘터리 영화 ‘태안’ 상영회 공동주최.
- 2022년 11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공동기자회견.
- 2023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공동 기자회견.
- 2023-2024년, ‘군사충돌 부르는 적대행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9.19군사합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 2023년-현재,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및 출범 참여.
- 2024년 1월,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정권 규탄’ 공동 기자회견.
- 2024년 2월,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행위 중단하고 대화채널 복원하라!’ 공동 기자회견.
- 2024년 5월,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다크투어리즘과 평화운동:전쟁·분단의 역사와 기억’ 제주포럼 세션, 토론자 참여.
- 2024년 9월,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
- 2024년 10월,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년’ 공동성명
- 2024년 11월, ‘전쟁 프로세스를 평화 프로세스로! 윤석열 정권의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공동 기자회견
- 2024-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참여 및 윤석열 비상계엄·탄핵 운동.
- 2025년 1월,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 2025년 2월,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중단하라!’ 집중행동.
- 2025년 2월, ‘대만228사건 희생자들을 함께 추모합니다.’ 공동 성명.
- 2025년 3월,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발 사고 철저히 규명하라!’ 공동 기자회견.
- 2025년 3월, ‘제주도정은 송악산 매입부지 온전히 보전하라!’ 공동성명.
- 2025년 4월, ‘파면으로 역사의 참된 봄을 부르자’ 공동성명.
- 2025년 4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전한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공동성명.
- 2025년 5월,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 불허하라’ 공동 기자회견.
- 2025년 6월,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공동성명.
- 2025년 6월,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동 기자회견.
- 2025년 7월,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 철저히 수사하라’ 공동 기자회견.
- 2025년 7월,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생명수를 사수하라’ 공동 기자회견.
- 2025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응답하라’, 제2공항 갈등해결 진정 이후 경과와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 2025년 9월, ‘제주평화인권현장 즉각 제정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 2025년 10월, ‘팔레스타인 해방, 해초와 구호선단 평화활동가 연대’ 제주 집회.
- 2025년 12월, ‘모든 혐오와 차별을 중단하고 이제 평화와 인권의 언어로 말하자’ 공동성명.



- 2025년 12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적극 환영한다’ 공동성명.
- 2025년 12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라’ 공동성명.

## 1) 뿌리는 지역사회에, 가지는 전국/세계로

단체 창립자들은 육지 출신으로 대표였던 백가운 전대표가 참여연대와의 인터뷰에서 단체 창립 계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주43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던 계기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육지에서 내려온 경찰의 강경대응을 보면서 ‘4·3때랑 똑같은 짓을 한다’고 외친 것이었다. 제주43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민간인이 많이 죽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주를 오가던 활동가로서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제주43 당시 도민들이 외쳤던 주요 구호는 ‘통일독립 전취하자’, ‘경찰탄압에 반대한다’였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런 문제들이 당시에 잘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군사적 갈등과 과도한 방위비 지출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제주43이 한국의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의 근간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sup>1)</sup>

기존의 43 운동이 제주출신 활동가가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끌어온 반면, 제주다크투어의 공동 창립대표 모두 육지 출신이다. 이들은 제주출신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의 역사인 43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서 전국 그리고 국제사회까지 43을 알리고자 하는데서 운동이 출발되었다. 그래서 단체의 지리적 활동 공간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나 후원회원을 비롯한 공익활동의 주 대상은 제주도민을 넘어 국내외 시민들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전체 후원회원의 62.9%가 도외 거주자이다. 주 활동분야인 기행사업도 2025년 기행에 참여한 단체를 기준으로, 약 77.3%가 제주도의 단체가 참여하였다.

제주43뿐 아니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0.19 여순항쟁, 4.16 세월호 참사 등 국내 다양한 과거사와 참사에 연대하고, 대만2.28, 난징 대학살, 아프카니스탄, 우크라이나, 홍콩 등 국외 과거사 및 현재 진행형의 전쟁이나 참사에도 연대의 힘을 보태고 있다.

## 2) 배제된 사람들의 편에서 이야기하기

제주다크투어가 알리고자 하는 제주43의 역사는 배제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무장대보다는 정부 및 토벌대에 의한 피해,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부의 입장보다는 무장대가 꿈꿨던 나라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알리고 있다. 기존에 많은 기록되고 알려진 남성 중심의 희생자의 서사에서 여성, 그리고 생존자의 서사까지 관심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간혹 단체의 역사 해설이나 활동 관점이 특정 이데올로기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다크투어는 기존의 역사가 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1) 참여연대, 「다크투어는 제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2019.04.26, [http://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1527](http://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1527)

알려지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에 있는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 침묵당한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시민단체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아직 제주다크투어가 제대로 알려거나 옹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가 법으로 정하는 ‘희생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43 당시 무장대 및 남로당 제주위원회 핵심 임원인 희생자와 유족들, 군인들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폭발물 희생 아동들이 그 범위에 든다.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리는 활동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 3) 익숙해진 것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만들기

제주43의 진상규명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이 역사에 있는 여러 개념이나 의식들이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도 있고, 과거에는 문제제기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는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희생자’는 국가공권력 또는 무장대에 의해 희생된 제주도민들을 의미하는데, ‘피해자’, ‘사망자’ 등과는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미묘한 차이를 두고 있다. 지금은 ‘제주43 희생자’라는 표현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존자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무고성이나 무지함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반면, 저항이나 운동적인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점 등 기존의 표현에 대한 아직도 이견이 존재한다.

제주다크투어도 이미 정착된 표현이나 의식들에 대해 비판적 고찰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역사현장 중 ‘잃어버린 마을’을 방문할 경우, ‘잃어버렸다’는 표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곤 한다. ‘잃어버리다’는 소유자의 부주의로 상실했다는 의미가 큰데, 43기간 폐촌된 마을들이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부주의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군경 토벌대에 의해 집들이 불탔고, 주민들이 희생되면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되어버렸다. 이에 제주다크투어는 ‘빼앗긴 마을’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대안을 제시해보기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운 잃어버린 마을 표석, 유적지 안내판에 역사의 가해주체가 아예 누락되거나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박진경 추도비’ 외에도 ‘이승만 공적비’,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와 제주4·3경찰유족회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제주도 내 10여 곳 경찰지서 옛터에 세운 ‘옛 경찰지서 폭도 표석’의 역사왜곡 내용에 대해서도 철거 내지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밖에도 유교적 추모방식이 아닌 대안적 추모방식, 43에 대한 이름 짓기, 이름 짓기의 (불)필요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해보고자 한다.

### 4) 정보 접근성 높이기

제주43은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당했던 만큼 초기 조사와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은 여러 위험

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세상에 널리 공개되는 것은 더 큰 두려움에 맞서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꾸준히 조사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43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이 자료들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심지어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은 조사자료도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이에 제주다크투어는 홈페이지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주43 및 관련 이슈들을 알리고 있다. 또한 대표적 지도 플랫폼에도 제주43 역사현장이 잘 안내가 되도록 업로드하는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무료로 제공하는 43 기행 관련 정보, 좋은 유튜브 영상을 소개하는 등 누구나 제주43에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제주다크투어에 제기된 질문과 과제

### 1) 불편한 ‘다크투어’

다크투어(리즘)은 전쟁, 재난, 역사적 비극 등을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역사적 교훈을 얻고 성찰하는 여행의 한 형태이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일본 히로시마, 한국의 서대문형무소, 제주43평화공원 등이 대표적인 다크투어(리즘) 공간이다.

제주43을 알리고 현재진행형인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43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보존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정말 많은 역사현장이 조사되어 있었다. 그래서 창립자들은 당시 주목받기 시작한 ‘다크투어’를 활용하여 이 역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했다. 그래서 단체의 이름도 기존의 시민단체 이름이 아닌 여행사를 떠올리게 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했다.

그러나 ‘다크’라는 표현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단체명을 교체하라는 제안도 많이 받고 있다. 비전이나 희망이 없고, 비극성만 강조하는 ‘다크’라는 표현보다 평화기행, 피스투어, 역사 교육여행, 기억투어 등 다양한 대안들이 쓰이고 있다. 제주다크투어는 이러한 지적들에 공감하는 한편, 여전히 ‘다크투어’를 적절하게 대체할만한 단체명을 찾지 못해서 구체적인 단체명 변경까지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 2) 육지 것의 한계 극복해야 하는가, 공존해야 하는가

창립자부터 현재 상근활동가 모두 육지 출신으로 제주도 이주민들이다. 기존 43단체들이 제주도 토박이 출신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제주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제주도 내 이주민 인구가 늘면서 과거와 같은 텃새나 터부는 많이 상쇄되었으나, 43시민운동계에 일원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제주43의 역사가 제주도의 전체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43과 연결되는 현재의 이슈들(제2공항, 알뜨르비행장 평화대공원, 강정해군기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주도내의 다양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제주43을 이해하는 데에는 당시의 국내외 정세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제주다크투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주 이용자나, 후원회원의 대부분이 육지부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활동방향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도외 및 국제사회를 균형 있게 다루고 지향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단체 내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어 균형 있는 연대와 소통은 늘 고민되는 과제이다.

### 3) 성역화 대 상업화

오래 전부터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43유적지는 순례, 기행 등의 방식으로 탐방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지금과 비교하면 도로나 이동편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역사현장이 많았으나, 그만큼 실제 역사현장에서 겪었을 상황에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역사 현장 관리체계가 촘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동굴, 진지깡도 실제 흔적이 많은 남은 유적지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

최근에는 핵심 역사현장을 중심으로는 제주도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차장, 포장도로, 화장실,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확대되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약자 등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역사현장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으나 환경개선 과정에서 예전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또한 안전을 이유로 접근이 패쇄된 역사현장도 늘어나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역사현장도 늘어났다.

### 4) 기타

모든 시민단체가 갖는 대표적인 공통과제는 단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부금으로는 상근활동가 2명을 두는 것이 최대인데,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거나 확장하는데 한계가 분명하고, 상근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없다. 이에 후원회원을 더 늘리고, 외부 지원사업을 확보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기획도 충분한 인적 자원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상유지는 가능하나 단체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적은 자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회원을 늘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선행되어야 한다.

후원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직접 참여 사업은 운동의 필요성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넓히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원칙을 고수하다보니 재원확보가 쉽지 않다.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독립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 및 총선 그리도 대선을 앞두고 핵심 공약을 제안 및 평가하는 활동을 해야하고, (도)의회의 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조례나 법안 심의 과정의 감시 등 다양한 감시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또한 인적자원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나 과제들은 많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제들이 제주다크투어

만의 과제라기보다는 제주43을 중심으로 운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위가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 결론

제주43이 진상규명되는 과정에서 많은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면서 관료조직이 늘고, 초창기 단체나 활동가들도 관료화의 틀에 편입되었다. 많은 역사현장에 안내판이 설치되고, 부지 공공매입, 주차장이나 포장도로가 개설되는 등 유적지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까지 진행되면서 이 역사 남은 과제는 화해와 상생, 반성의 완결로 귀결되는 경화되는 면도 있다. 그러면서 제주43과 관련된 학살과 피해, 진상규명의 이야기가 고정된 이미지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다른 과거사 간의 위계가 발생하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비극의 재발의 가능성이나 다면적인 역사의 기억을 위한 노력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위계와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하고 견뎌야 한다. 아직 기록되지 못한 목소리를 찾고, 사라진 공간을 상상하고, 높은 책장에 꽂힌 기록들을 드러내고, 다양한 분야와 조응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43뿐 아니라, 12.3계엄 및 내란을 중단시켰던 시민의 힘과 역사의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답을 찾아가야 한다. 그래야 통일된 나라를 꿈꾸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70여 년 전의 희생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들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참여연대, 「다크투어는 제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2019.04.26, [http://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1527](http://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1527)  
한선아 (2025), 애도의 미학, 미술문화.